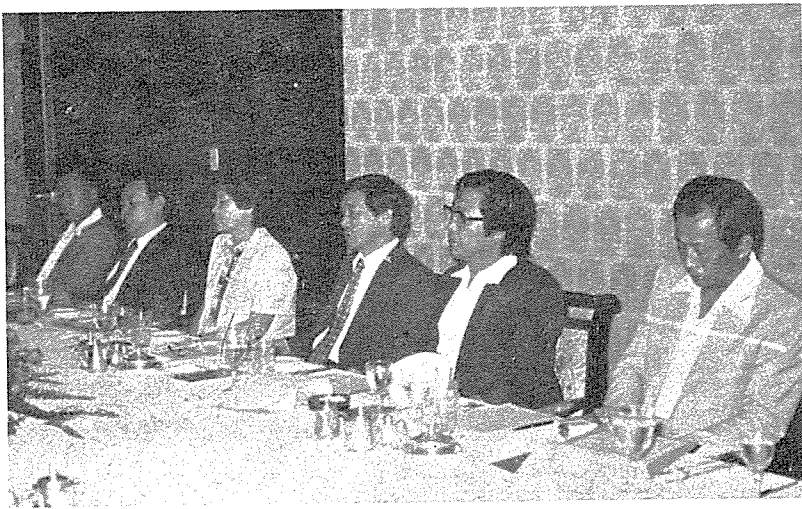


학교 우유급식을 위한 좌담회



학교 우유급식은 우유소비 촉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장차 제2세 국민을 보다 튼튼하게 기르기 위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협회는 학교우유급식 1주년을 맞아 학교급식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학교장, 학부모, 제조회사 등 여러인사를 초빙하여 좌담회를 갖었다. —편집자 주—

일 시 : 81. 9. 1.

장 소 : 프라자호텔

사 회 : 이영부(유가공협회 상근부회장)

참석자 : 이기복(농수산부 낙농과장)

박준교(문교부 학교보건과계장)

김지주(서울시교육위원회 체육과계장)

김창재(개봉국민학교장)

안성희(명수대국민학교장)

김신자(개봉국민학교학부모)

김주자(오류국민학교학부모)

노삼석(한국경제신문기자)

조이형(서울우유조합영업상무)

박정선(대일유업(주)영업이사)

이영부부회장 : 이 자리에는 문교당국, 농수산부당국, 교육위원회,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우유를 만들어 주시는 업체, 언론계 여러분을 모셨는데 오늘로서 학교급식 1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1년동안 학교급식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낙농과장님께서 1년간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든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부 부회장



이기복 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낙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행 하는 것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듯이 정착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겠다.

이기복과장 : 학교 우유 급식이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꼭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학교 우유 급식은 지난 '80년 9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급식을 하게 된 동기는 79년 하반기부터 경기 불황으로 우유의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5년도 이후 78년도까지 우유 소비의 신장율이 전년대비 20~30% 정도로 늘고 있었는데 79년도에 와서 전년대비 15% 밖에 늘지 않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78년까지는 유제품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늘어나는 부족량을 수입의 형

태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부는 분유 수입을 하도록 시행했었고 분유수입보다는 젖소를 도입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아울러 우유의 수급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젖소도입을 예년에 없는 많은 두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 예견치못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우유소비가 예측했던 것보다 덜 되어서 우유 체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구상한 것이 학교우유 급식이었습니다. 그간 문교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교에서의 협조, 학부모의 협조를 통해서 무난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지난해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콜레라로 인해서 다소의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저희로서는 학교 우유 급식이 우유 소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의 예를 든다면 우유 급식은 아동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우유의 질이 안좋아 맛을 부리는 적이 있었고 급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먹는 아이와 안먹는 아이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선생님들이 직접 급식에 참여해서 귀중한 가르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결과와 대금을 징수하는데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야기될수 있는 우려가 있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정착시켜야 될 칼나에 금년도에 들어와 6월 1일부터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가격이 생산비에 미달되어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일반시장의 시유와 학교 우

우유 급식의 조정도 부득이한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종전 가격대로 공급해 줄것을 문교부에서 몇 차례 요구가 있었고 농수산부 장관께서도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이 있어 시유 인상폭의 15%정도 조정해서 현재 시범 학교의 경우 국민학생에 대해 100% 무상 급식을 시키도록 조치했고 시범학교중의 일반학생은 20원 보조 일반학교의 학생은 5원 보조를 하겠끔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미미한 돈이나마 정부 차원에서는 18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우유가 남거나 체화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국가 차원에서 본다고 할때 제 2세 국민의 체위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유 급식이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입장으로 보아서 금년도에 160만명으로 잡고 82년도에는 200만명을 하고 5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년도까지는 300만명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겠으며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농수산부에 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축산진흥기금을 최대한 지원해서 우유급식의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급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시행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될지 모르나 금방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실하에서 서로 협조하고 하루속히 만족스러운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영부부회장 : 지금 학교 급식이 정착화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체화된 물량이나 소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감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 정착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흐뭇합니다.

문교부의 박사무관께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의 결정체인 우유가 가격면에서 우리와 친근해져서 가계의 큰 부담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대중화 되었으면...



박준교 회장



김지주 회장

박준교 회장 : 문교부 입장은, 아이들 입장만 생각해서 외고집으로 주장해 왔던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학교 급식을 다룬다는 실무자 이전에 저도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로서 우유 식품의 가치가 좋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욕심껏 싸게 먹일 수 없을까 하는 것이 가계를 꾸려 나가는데 욕심이고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제일 고려했던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문교부 욕심을 주장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우유가 좋은 식품인것 만은 틀림없고 중산층 이하에서 불매 아직 거리가 먼 습관화 되지 않은 식품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제 1차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낙농이라는 중대한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 보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

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보편화된 식품이 아니고 가격면에서 우리와 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100원이 생겼을때 쉽게 우유를 사먹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친근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을 볼때 초창기 65년도에 보조율이 46%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학교급식을 했었는데 정착 되지 못하고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급식이 1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단계니까 여기에 대한 저변확대가 될수 있겠고 낙농에 획기적인 발전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유자체가 사랑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소 어미가 새끼한테 주기 위해서 정성껏 모은 음식입니다. 비록 대상이 자기 새끼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유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질 때에는 정부 당국도 학부모도 업자도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바탕으로한 근거에 의해서 우유급식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랑은 희생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급식을 정착시켜서 이것이 결정체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낙농이 더 많이 진흥되어서 국가의 보조 없이도 우리가 뉴질랜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처럼 우리생활에 친근한 식품으로 될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믿고 초창기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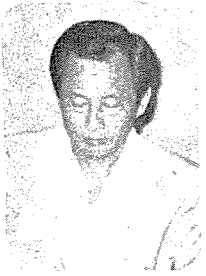
이영부 부회장: 부자원도 없고 농토도 좁으니깐 외국에서 딸라를 주고 소를 사다가 풀만 먹이면 좋은데 옥수수도 사서 비행기로까지 실어다 먹이니까 유가가 비싼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싸게 먹이느냐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학교당국에서 급식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기회에 말씀 해 주십시오.

우유의 변질 방지를 위해서 유통 및 급식 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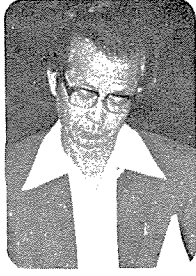
안성희 교장: 저희 학교는 우유를 먹고 싶어도 못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4, 5학년 아이들은 급식을 안하는 아이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1, 2학년 아이들은 우유만 마시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마시기 싫어서 안마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마시는 아이들을 볼때 안타까웁니다.

또 우유를 먹이고 하교를 시켜야 하는데 먹는 아이들과 안먹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 하교시켜야 하는 불편도 있고 또 학교에서 다 먹고가면 좋은데 동생을 주려고 가방 속에 넣었다가 가지고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두면 옆에 아이가 꺼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과정인데 보급소에서 겨우 학교에 가져 오는 것이 냉동차가 아닌 차로 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분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냉장고는 있지만 냉장고에 넣었다가 분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제로 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기후가 좋을때는 괜찮은데 더울때 집으로 가지고 가면 변질이 생겨서 어느 가정에서 변질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우려가 있음



조이형 상무



김창재 교장



김수자 학부모



노삼석 기자

니다. 또 한가지는 우유 생산과정에서 소가 먹는 사료에 따라 우유의 맛이 다른지 모르지만 맛이 싱겁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방에 여행을 하다보면 길가에 우유통이 햇볕을 쬐이고 있는데 산패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안심은 되지만 그런것은 걱정이 됩니다.

이영부부회장 : 학교급식을 많이 하시는 서울우유조합의 조상무님, 급식하는데 어려운 문제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볕에 우유통을 놓아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과정에 있어 잘못된 점들은 최우선으로 개선해서 성실한 학교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이형상무 : 먼저 우유 급식 때문에 농수산부, 문교부, 교육위원회 각 학교장 선생님,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나 물량면에서 전국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일집유량이 약 38만kg이며 낙농을 하는 4천여 조합원이 있습니다.

낙농에 장기적인 안정과 학생들이 우유를 계속 애용함으로써 장래 우유에 대한 선전보다는 급식이 영속화 되어서 우유에 대한 이해가 있

으면서 낙농도 같이 발전된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 급식은 최우선 과제로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몇가지 말씀하신점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우유가격으로는 대부분이 낙농가에 대한 환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수익성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느정도 출혈을 하더라도 학교 급식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정부의 재정이 어렵지만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학생들한테 투자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지만 시간이 안맞아 넣지 못하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는 시정해 주도록 선생님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묽다고 하는 문제 저도 혹은 들은 일이 있는데 원인은 알수 없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출판매 문제는 저희 회사도 계몽을 했고 농수산부 보사부 서울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왕왕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도는 업체에서만 다할 수 있느냐 의문입니다.

학교 급식에도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안성희 교장



김신자 학부모



박정선 이사

다소 불비한 점은 개선해서 낙농도 안정시키고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급식을 계속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회장 : 여러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불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유통과정의 체계화가 필요

김지주 계장 : 교육위원회는 문교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건강 증진면으로 우유는 꼭 급식해야 된다는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업체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믿고 마실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일축하고 싶습니다.

이영부 부회장 :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우유를 먹일때와 안먹일때 가게의 주름이 가면서도 먹이는데 다른점이 있습니까?

극빈 아동의 범위를 확대해서 급식의 혜택을 골고루 주었으면 한다.

김신자학부모 : 우유가 아동에게 필수적인 식

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일부 아동한테만 급식의 혜택을 주지 말고 전체 아동한테 혜택이 미치도록 해주시고 극빈 아동의 범위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어머니들께서 돈을 더 내서 못먹는 아이들이 없으며 교장선생님이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서 잘 되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극빈 아동의 범위가 영세민과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으니 적어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공급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부부회장 :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500불 밖에 안되니까 좀더 부자가 되면 점차로 의무교육 하듯이 국민학교 학생한테 전부 우유를 먹일 수 있겠지요.

금년도에 예상된 보조금 18억원이 전부 쓰여지도록 우유급식이 확대되기를 희망

이기복 과장 : 보조와 연결이 되는데 바람직 한 것이라면 국가보조로 충당되어서 급식이 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18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재원도 축산

진흥기금으로서 원칙적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금조성을 마련했는데 그렇게만 못하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를 같이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소비층에 많은 기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0만명으로 계획하여 18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것이 전부 쓰여질 전망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유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면 금년도의 18억원의 어려운 재원이 극빈아를 위해서 급식재원으로 쓸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유급식을 하는데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학교당국, 교육위원회, 학부모 측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부부회장 : 우유량이 월 4만 3천톤 일800만홉을 생산하는데 유통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제품 생산은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단 유통과정에서의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이 안되는 점은 항상 시정을 하려고 노력중이다.

박정선이사 : 젖소로부터 짜여진 원유는 병까지 시켜서 제품공장으로 운반되어 제품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름만 되면 변질문제가 나오는데 축산물가공 처리법에는 대장균 수가 씨씨당 10마리가 넘으면 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품화 되어서 나올때 유통과정에서 20도 이상의 상온일때는 대장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루만 경과하면 20만마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우유통이 햇볕에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빈통입니다. 그리고 가끔 햇볕에 놓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고 모든균을 없애서 생산 되는 것입니다.

생산된 우유는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데 유통과정에서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이 안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는 항상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부부회장 : 1년간 급식을 했는데 식품업체에 출입하는 노삼석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조과정의 부주의는 책임을 느낄줄 알아야 하겠으며 선생님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유업계에서 할일은...

노삼석기자 :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맹물 우유가 학교에 나가서 말썽이 난적도 있는데 그것을 알아본 결과 공장에서 기계를 닦아 낼때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생산된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충분히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 언론계에서는 업체가 부주의로 실수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설득을 시키는일도 학교급식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생산업체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이형상무 : 선생님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는 현재 어떤 명목으로든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기복 과장 : 앞으로 우유가 부족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모자라면 급식을 중단하지 않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

학교급식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의 모순점은 정부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 해서라도 학교우유 급식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는 체화현상이었지만 성장기의 아동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사항이라면 이것을 서로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정부차원에서 모순되고 불비한 것은 시정하면서 나갈 계획입니다.

노삼석기자 :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체는 제품을 좋게 만들어야 하고 선생님은 교육적으로 급식이 잘 되도록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지주 계장 : 체화현상에 따라 학교 급식을 잠깐 했다가 중단해서는 안되고 저변 확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유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리야카로 운반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이형상무 : 유업체에서 보급소까지는 완벽하게 되고 있으나 문제는 유통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단속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이 보급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으며 급식 학교까지 직송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교 계장 : 서울우유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먹는 우유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포장을 달리하고 재미있게 우유가 먹음직스럽다는 느낌이 들도록 포장으로 친밀감을 갖일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형상무 : 서울우유의 학교 급식은 7월달에는 536개교 물량 53만개로서 전국 급식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이화여대 김숙희 교수의 의견은 150cc로 급식을 하면 어떻냐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시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포장단위가 이원화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앞으로 포장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준교 계장 : 포리팩과 에코팩이 나오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목적일 것 같습니다.

조이형상무 : 포장문제는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포리팩으로하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8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안성희교장 : 포리팩으로 할 경우 포장이 약해서 운반도중 파손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준교 계장 : 학교급식을 보다 확대하는 입장에서 싸게 많은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포장을 다르게 하면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먹는 우유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복 과장 : 지금 말씀 하신데로 그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자학부모 : 저희 학교는 티켓을 사용합니다. 문교당국에서는 선생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유업체 재량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느라고 깔리고 밀리고 위험합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교 계장 : 국민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먹을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방안

이 없습니다.

김창재교장 : 제조일자 표시는 선명하게 표시 되도록 해주시고 전체 아이들이 급식을 했으면 좋은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이 90%를 학교급식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상자가 안먹는 것입니까?

박준교 계장 : 일본은 시초가 극빈자를 포함한 급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발상이 다르지요. 지금도 일본은 가격을 조정하는 중간협회가 있고 극빈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영부부회장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조업체는 남는다고 먹이고 모자란다고 중단 않고 급식을 정착화 될수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만드는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서 유지하고 먹이는 기풍을 조성하여야 겠으며 특히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싶은것은 보조금을 만들어 계속 보조해 주셔서 학교급식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토막지식〉

세계 각국의 1인당 연간 우유 생산 및 소비(1978. 단위 kg)

나	라	유 생산	소 비			
			액 상 유	버 터	치 스	탈 지분유
미	국	253.7	106.1	2.0	7.8	1.5
캐	나	318.4	112.1	4.3	6.7	5.2 2
오스트레일리아		382.8	115.1	5.3	6.1	3.4
벨지움, 룩셈부르크		388.3	76.7	10.3	10.9	10.3
브	라	130.9	66.5	0.6	2.0	1.4
중	국	6.6	—	0.1	0.2	1.3
체코슬로바키아		358.1	81.8	7.8	6.5	—
덴	마	1051.1	153.2	9.4	9.8	7.5
핀	란	677.4	280.9	11.1	6.7	10.7
프	랑	591.4	69.6	9.8	17.7	11.2
동	독	481.4	—	16.8	11.4	—
서	독	379.8	57.1	6.7	12.4	5.6
형	가	205.2	73.3	2.3	2.7	1.5
인	도	38.6	17.3	0.7	—	0.1
이	태	188.6	80.1	2.1	13.1	4.0
일	본	53.4	32.1	0.5	0.7	2.0
백	시	98.6	71.2	0.1	1.8	1.1
네	델	807.6	131.7	2.9	12.8	27.1
뉴	질	1849.4	161.6	13.1	7.3	5.2
노	르	456.5	224.6	5.7	11.1	2.7
폴	란	504.5	135.6	8.3	9.7	3.3
남	아	82.0	34.0	0.6	1.0	0.8
스	웨	389.6	155.9	6.3	12.1	2.9
스	위	556.7	114.1	7.0	11.7	4.7
영	국	268.5	132.5	7.3	5.7	1.5
소	련	363.6	67.0	5.6	2.7	1.6
유	고	192.4	97.5	1.0	6.2	0.7